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내 것이 아닙니다, 맡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1-2

2026년 '창조세계보전의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신앙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세상은 "내 인생과 소유는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은 여호와와 그의 것"(시 24:1)이라고 선포합니다.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간이 '거주자(청지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소유주' 행세를 하며 자연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보던 일을 셈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결산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자녀 된 청지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충성)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소유권 점검] 내 삶의 영역(물질, 자녀, 시간, 건강, 자연 등) 중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한다면 나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2. [청지기의 충성] 설교에서는 청지기의 충성이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충성'(예: 텀블러 사용, 잔반 줄이기, 난방 온도 조절 등) 한 가지를 약속하고 나눠봅시다.



✠ 교회 소식 ✠

㉠ 예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
교회의 내일은 다음 세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117년의 신앙을 물려줄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복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힘써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4일(오늘)은 신년주일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 26년 각 부 봉사자 임명식 : 4일(오늘) 예배 시

㉡ 26년 각 부 봉사자 임명 (별지 참조)

㉢ 예산결산위원회 : 4일(오늘) 오후 1시 30분, 회의실

㉣ 모임

- "풍성한 삶의 첫걸음" : 오후 1시 30분, 소가재
- 독거노인 반찬배달 : 8일(목) 오전 10시, 친교실

㉤ 향존직 피택자교육 : 6일(화) 저녁 7시, 회의실

㉥ 북촌 65+ 스마트 경로당 개소를 위한 협조

- 장소 : 소격동 한옥 사택 (북촌 주민들을 위한 장소로 사용 제공)
- 기증품 후원 : 주방, 생활, 가전 제품 등 (문의 : 박정희 권사)

㉦ 지휘자 부임 : 김성미(2부 찬양대)

㉧ 26년도 주일 점심 배식 시간 안내

- 배식 : 오전 11시 30분~12시 45분
- 남선교회, 여전도회 월례회는 먼저 식사하고 난 후 진행

㉨ 26년 주방 설거지 여성봉사자 모집(연2회 이상)

- 신청 : 친교실 입구 신청서에 원하는 날짜에 이름 기재

㉩ 26년 파파손 남성 설거지 봉사 팀원 모집

- 대상 : 안동교회 남성성도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음)
- 봉사 : 연2~3회 (봉사 일정 조율 가능)
- 문의 : 유장선 안수집사 (파파손 팀장)

㉪ 식당봉사

- 4일(주) : 김주연 김현정 박금희 / 이형섭 정찬욱
- 11일(주) : 권은경 김미정 유정희 장형순 / 이준호 허재우



<봉헌과 감사의 기도>

(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 신비와 능력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모두 잠든 밤에 주께서 자기 몸을 낮추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고요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사심과 그의 죽으심 가운데 주님의 선물, 곧 구원이 있기에 그의 얼굴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회중) 저희가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감사함으로 불타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대로 줄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과 평화의 주 하나님께 봉헌하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와 영원까지 은혜로우신 이름 곧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파송

<세례 첫주일 성만찬>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 1)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 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 눌려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 2)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 3)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후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위탁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 설교 : “무거운 짐을 진 당신에게 건네는 초대”
/ 마 11:28-30; 전 2:22-23; 엡2:8-9 >

성탄절 후 둘째주일에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사60:1,3)

(목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모든 민족의 주 하나님, 영광스런 주님의 별이 찬란히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육신이 되신 주님의 말씀의 광채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밤을 깨움고 정의와 평화의 새벽이 동터 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광채로 우리 삶을 비추게 하시고 온 민족이 한결같이 주님의 길에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하나되어 성부와 함께 계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빛의 광채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36장 다 같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형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합니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믿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이 우리 한가운데에 계셨음에도 우리가 눈을 감았고, 고대하기도, 소망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심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3) 사죄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550장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시편 24:1-2(818) 송홍식 집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4:1-2(266) 송홍식 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묵상>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민동림 권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16:1-2(122) 송홍식 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 설 교 > 『내 것이 아닙니다, 맡은 것입니다』 ...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목 회 기 도

찬 송 79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